Catholic
청년주보

제1108호
2020년 2월 2일(가해)

주님 봉헌 축일(축성 생활의 날)

그림 | **홍 세레나**

입당송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말라 3,1-4

화답송 시편 24(23),7.8.9.10(◎ 10ㄴㄷ)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제2독서 히브 2,14-18

복음환호송 루카 2,32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루카 2,22-40 <또는 2,22-32>

영성체송 루카 2,30-31 참조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청년 인터뷰

은총의 길을 향해 나서는 안동현 마티아

저는 2010년 반포성당 전례단으로 청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엔 주일 전례만으로도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아 친구들이 무신론자인 줄 알았다고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합리적인 사람'으로 여겨져 내심 싫지만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루어두었던 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원을 맡으면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반대로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기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서공부, 봉사, 전례학교 등을 통해 말씀과 전례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하면서 점차 삶의 많은 부분을 기도로 청하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원 활동 중 다양한 나눔,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하느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합리만 생각하던 제가 '진리와 영원'을 추구하고 싶어졌고, 하느님의 도구로써 쓰이는 기쁨 속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성신교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은총의 자리든, 사랑의 자리든, 상처의 자리든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함께해주신 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도 체험하시어 더욱더 많은 사랑과 은총 안에 사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봉헌의 의미

강연준 베네딕도
2020년 서울선택 대표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복음에서 성모님과 성요셉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봉헌된 아기 예수님은 앞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당신의 아드님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봉헌은 이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소중한 아들을 그것도 세상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는 봉헌은,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수한 사랑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앙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때론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행사를 엽니다. 작년인 2019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석 달 전에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봉사팀이 꾸려졌고, 저를 포함한 열 명 남짓의 청년들이 봉사팀에 선발됐습니다.

반나절 동안 진행되는 행사지만 사실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장소 대관부터 각종 프로그램 구상, 다양한 편의시설 및 먹을거리 준비 등 참가자들이 불편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체육대회라고는 중고교 시절이나 회사 체육대회 참가 경력이 전부였을 우리 봉사 팀원들은 부족한 경험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마다 모여 프로그램을 짜고, 직접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며 아쉬운 점을 보완했습니다. 주말에는 누군가의 집에 모여 색종이를 자르고 소쿠리를 이어 붙여 체육대회에 쓸 소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모임의 시작과 끝에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체육대회에 영혼을 갈아 넣고 있다(?)'는 농담을 서로 주고받으며 곧 다가올 단 하루 그날을 위해 애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체육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인 많은 참가자는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대보다도 좋은 참가자들의 반응에 준비한 우리의 기분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행사 전 준비가 미흡하진 않을까 걱정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저 우려에 그쳤습니다. 기도 덕분이었는지 우리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빈 곳은 하느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봉헌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 봉사자들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내내 필요한 일은 먼저 나서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했던 모습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순수한 마음처럼,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참가자들을, 그리고 서로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머문 자리

아직 나는 준비 되지 않았다고 여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던 순간들 속에서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임효진 마리아]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낀 순간을 사진과 글에 담아 보내주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친구 추가 후 전송

『말씀가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고 성찰하는 길

오늘의 말씀 <루카 복음 2,22-40>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긴 인물, 시메온

designed by monkik from Flaticon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본 것은 예수님이 곧 구원이시기 때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느님께 찬미

시메온: '하느님께서 들으셨다.'는 뜻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첫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탈출 13,2)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두 마리 봉헌 (레위 12,8 참조)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

정결례 거행

모세의 율법

예언자, 한나

designed by Freepik from Flaticon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루카 2, 34)

성모님에게 예수님께서 걸으실 길을 예언

한나: '은혜'라는 뜻

성전에서 단식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파

주님 봉헌 축일

designed by Freepik from Flaticon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40일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386년부터 주님 봉헌 축일을 지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축성 생활의 날'을 제정

한국교회, '봉헌 생활의 날' → '축성 생활의 날' 용어 변경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9.12.2)

수도자를 위한 날로 삼음

내 마음 밭에 다가온 말씀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오늘 복음에서 세 명의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바친 성모님과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던 시메온. 그리고 예언자 한나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모님은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봉헌했고, 시메온과 한나는 주님을 따르는 강직한 믿음을 수많은 시간 기도를 통해 봉헌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바치던 봉헌의 의미를 좀 더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봉헌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장유리나 수산나]

말씀 심기

- 당신에게 다가온 말씀은 무엇인가요?

-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나요?

나를 이끄시는 사랑의 주님

최지원 플로라 / 신내동 성당

얼마 전 새해를 맞이하여 본당 단체장들과 L.T를 다녀왔다. 새로운 회장단이 꾸려지고 처음으로 맞는 행사에 다들 들뜨고 즐거운 모습이었다. 마재성지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우리 본당 청년의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매주 활동은 같이하지만 단체도 다르고 미사 전, 후로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 외에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일이 많이 없어 L.T에서 꼭 나눔을 하고 싶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어 우겨서 한 나눔이지만 모두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만큼 나도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문득 나의 모난 성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 나는 잘 삐지고, 쿨 하지 못하다. 때론 혼자 상처받고 끙끙대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모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나눔 중에 자신의 모난 부분에 대해 고백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감추려는 나에 대해 반성했다. 아마 주님은 내가 이 자리를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을 둥글게 감싸고, 다른 사람들의 모난 부분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던 게 아닐까? 조금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나를 이끄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당 활동을 하며 나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많은 사람과 주님 보시기 좋은 청년부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싶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보호를 받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다.', '그분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해 본다.

찬란한 젊음을 선물해 주신 주님.
저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인내심과 강인함을 주시어 어떤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시며
공동체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일어서게 하소서.
이기주의의 유혹이 있거나 배척의 마음이 들 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내려주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사랑의 눈으로 굽어 살펴주시어,
언제나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 신내동 성당 청년 기도문 중 -

명동청년성서모임 2020년 봄학기 그룹원 모집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모집기간 2월 9일(주일)~23일(주일) 선착순
모집대상 20세~35세(1986년생)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http://cafe.naver.com/ourbible)
② 성당마당 접수 - 2월 9일(주일), 2월 16일(주일) 오후 4시~8시
문의 온라인 카페 게시판 이용

김수환 추기경 선종 11주년 미사 안내

일시 2월 16일(주일) 오후 2시 / **집전** 손희송 총대리 주교
장소 천주교용인공원묘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경당
문의 재)바보의나눔 02-727-2506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